

《조국에 오기전까지 조선은 닫힌 나라, 모든것을 숨기는 나라라고 잘못된 묘상을 가지고있었다. 실지 와보니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전혀 숨김이 없는 나라,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체험하였다.》

《물속에 뛰어들어 조국인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싶다. 문수물놀이장에 서 저렇게 웃고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보내고있는 행복한 인민들을 서방에서는 조선인민들이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아가는다고 비평하고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

《조선은 땅도 사람들도 아주 순결하다. 지구상에 이렇게 신성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내 마음도 정화되고 조선으로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다.》

얼마전 로씨야-조선반도 종단자동차행진에 참가하였던 재로씨야동포들과 로씨야인이 공화국의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심경을 토로한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이곳을 찾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한결 같이 듣던바와는

## 최악의 인권지옥은 어디?

판이하게 다른 조선의 현실이라며 감탄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동족대결에 환장해있는자들의 입에서는 계속 열로당도않는 잡소리가 튀어나오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남조선미국간의 《학술회의》, 《국제인권연맹 11차총회》라는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인권탄압》이니, 《인권문제》니 하는 소리를 채친것이 바로 그러하다.

맥도 모르고 침통을 꺼내드는 놀람이원 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화국에 대해 말하려면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이라도 와서 보고 입을 열어야 할것이다.

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란 복을 제정적으로 불신, 거부, 적대하는 미국의 보수언론들의 억지 주장이나 공화국에 죄를 짓고 도망친 《탈북자》들의 악담을 얻어들은것뿐이다.

은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인권문제》라는 잡초가 돌아날

수 없다. 그릇된 인식으로 색안경을 끼고는 사물현상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는다.

인권문제는 오히려 남조선가 사회전반에 악성종양과 같이 퍼져 범람하고있다.

수개월이 지난으나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명에 간 원혼들은 오 늘도 눈을 못감고있으며 유가족들의 울분이 하늘에 닿았다.

하지만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피눈물에는 눈감고 술몰기의 신음에는 귀하고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민심의 절규에 일도 병국하지 않고있다.

지금 남조선사회에 풍랑을 일으키고있는 윤일병타살사건도 심각한 인권문제의 단적실례이다.

폭행, 구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과 같은 사병들이 해마다 늘어나 인민들속에서는 《내 생명같은 내 아이를 군대에 절대로 보낼수 없다.》고 하며 초등학교학생들까지도 군대가기 싫다고

겁에 질려있다.

또 윤일병과 같은 《관심사병》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A급 관심사병》은 8 634명, 《잠재적위협이 높은 B급 관심사병》은 무려 3개사단의 규모여서 군부우두머리들은 《군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라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남조선군의 범죄는 지난해에 3 757건, 올해 상반기에만도 1 841건으로 계속 증가되고있다.

사회적인 인권유린상태는 더 말할것 없다.

지난 25일 남조선의 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남조선에서 발생한 성범죄죄건수는 2만 5 591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범죄죄건수만도 무려 1만 5 565건으로 지난해 비해 1 000건이상 폭증하였다고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지난해 1만 6 785건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벌써 1만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년별 자살시도현황》자료에 의하더라도 전 년령대에 걸

쳐 하루 6명정도로 자살시도건이 있었고 그중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친다고 하였는데 몇가지 사실자료만 놓고서도 남조선사회의 인권실태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 인권블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의지도 없는 《인권문제》만 떠돌고있을수록 동족대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밑바탕에는 동족에 대한 적대시, 대결압살기도가 놓여 있다.

까마귀 백번천번 미역감아도 백로될수 없는것처럼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의 비뚤어진 속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동족대결분자들은 한마디 말하기 전에 열변 찬성을 다시 보고 생각하는 버릇부터 키워야 할것이다.

현실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고와 헤론 입이 자기들의 운명에 어떤 후과를 미치겠는지는 예측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은 시진강정의 길을 차단하여 피괴군내에서 사망의 1차적원인으로 되고있는 폭력범죄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군부내 폭력행위를 더욱 조장하여 피괴군을 미제의 식민지교용군으로, 동족대결의 수단으로 철저하게 길들이려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의 불순한 음모를 똑똑히 보여준다.

본사기자

## 비랑겔에서이 유점한 켄타기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싸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분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6월 남조선 미국련합군사령관은 《싸드》의 남조선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현재 사전조사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남조선에 《싸드》를 전개하기 위한 최종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 4일 미국방부는 남조선언론에 준 대담에서 《〈싸드〉의 〈한〉반도배치는 분명히 신뢰할수 있는 방어능력》이라며 《미국은 〈싸드〉부대의 〈한〉반도영구주둔을 고려하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1일 남조선에 날아가 미국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의 〈싸드〉체제와 〈한〉의 KAMD가 완벽하게 상호운용성을 갖추는것을 원한다.》는 발언으로 남조선이 저들의 미사일방어체계수립에 직접적으로 가담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이처럼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싸드》의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있는 속에 정작 그 배치지인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싸드〉체제와 〈한〉의 KAMD가 완벽하게 상호운용성을 갖추는것을 원한다.》는 발언으로 남조선이 저들의 미사일방어체계수립에 직접적으로 가담할것을 요구해나섰다.

미국이 이미 2006년부터 일본에 두대의 《엑스밴드트레이더》를 배치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의 동향을 감시해오면서도 대륙과 잇닿은 남조선에만은 배치하지 못한 것도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의 우려와 반대때문이었다. 그러던 미국이 《북의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며 끝내 남

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국방부 장관한민구가 《만약 미국이 주 〈한〉 미군을 통해 〈싸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의 핵 또는 미사일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6월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판진이 《우리가 〈싸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 〈한〉 미군이 전력화한다면 기존의 패트리오트와 함께 중첩방어가 가능해 북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형실수설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직접 가담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이겠다는것이. 남조선당국이 이처럼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고있는것은 《싸드》체제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복잡한 군사적문제를 초래할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기때문이다.

최대 150km의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수 있다고 하는 지상발사형 《싸드》체제는 해상에서 발사되는 《SM-3》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특히 이 체계에서 운영되는 《엑스밴드트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4 000km로서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조선반도뿐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의 넓은 지역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이 이미 2006년부터 일본에 두대의 《엑스밴드트레이더》를 배치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의 동향을 감시해오면서도 대륙과 잇닿은 남조선에만은 배치하지 못한 것도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의 우려와 반대때문이었다. 그러던 미국이 《북의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며 끝내 남

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는 경우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심각한 군비경쟁과 군사적긴장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기에 지난 7월 로씨야와 무성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방공시스템을 확대 배치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조선에 방공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경우 〈한〉반도핵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몰고가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중국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은 조선반도의 안정과 전략적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에 거이 《싸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것은 비랑겔에서의 줄타기와 같은 위험한 놀음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오직 저들의 목적과 리익만을 추구할뿐이며 외세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는 민족의 운명을 참혹한 재난에 빠뜨리게 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남조선당국은 심각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구축하려는 체계는 《북의 미사일대응용》이라느니, 《주변국안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느니, 지어 《레이더를 북쪽으로부터 고정》시키겠다는니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있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되게 되면 어차피 미군에 의해 조선반도지정권을 넘어 주변나라들에 대한 감시에 리용될것이며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된 남조선은 삶든 좋은 여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 총기로 사람을 마구 죽이는 미국식 《인권》

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피구순사에서 시작된 반인종주의혐의시위는 삼시에 미국전역으로 확대되어 14일에만도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100여개의 도시들에서 수많은 군중이 거리들에 펼쳐졌다.

문제는 흑인청년을 살해한 백인범죄자를 비호두둔하고있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이다. 범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의 항의에는 귀를 막고 당국은 군견까지 앞세운 중무장한 경찰들을 시위진압에 내몰았다. 이러한 가운데 19일에는 미주리주의 스프트 루이스에서 23살 난 흑인청년 한명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죽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

르다고 하여 흑인청년들을 마구 총으로 쏘아죽이는 만행은 지금까지 《인권옹호》에 대해 제일 요란하게 떠들던 미국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유린왕국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요 하는것들을 장황하게 만들어내곤 하는 그 미국이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아

규탄과 조롱을 당하고있다. 미국은 적하한 공화국의 《인권》이 어쨌소 하며 적대시압살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세상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추한 모습부터 들여다보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흑인청년살해에 항의하여 시위하는 미국인들

## 한 세기 이상 쓰고있는 식민지명예 (4) 빼앗긴 존엄, 빼앗긴 군통수권

남조선에는 일명 《국군》이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다.

하지만 《국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외세의 대포발, 침략의 돌격대로 되고있다. 또 국방부장관이란것도 명색뿐 실지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미군에 쥐여져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남조선군대의 통수권은 《대전협정》과 《합의의사록》과 같은 《협정》들에 의해 미국이 행사하고있다.

1950년 7월 리승만과 맥아더사이에 편지교환의 형식으로 체결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일명 《대전협정》)에는 전쟁기간 남조선군대의 통수권을 미군이 행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 1954년 11월 17일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의 보충 《협정》으로 꾸며진

《합의의사록》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남조선방위의 책임을 분담하는동안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규정하고있다.

남조선군대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라는 기구를 통해서도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있다.

원래 련합군이라고 하면 병력을 제일 많이 낸 나라에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것이 국제적관례이다.

하지만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수만명밖에 안되는 미군이 그 수십배에 달하는 남조선군대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있다. 《련합군》무력을 통솔하는 사령관뿐아니라 참모장과 주요구성군사령관의 자리는 미군장성들이 차지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참모부서에서도 기본인 작전, 군수부문 등은 모두 미군장성이 담당하고 남조선군

의 장성은 극히 부차적인 부분을 맡고있다.

결국 《련합군》의 실권은 모두 미군이 쥐고있고 남조선군대는 미군의 통솔밑에 끌려다니는 한갓 교용군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헌법》에는 《대통령》이 군의 《최고통수권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진짜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련합군》사령관직을 차지하고있는 남조선장점 미군사령관이며 그의 승인없는 한발자국도 이동할수 없는것이 남조선군대의 처지이다.

하기에 연제군이 남조선의 《월간조선》까지도 《〈대한민국〉이 과연 국가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검토해본다.》는 론제일에 《국방을 외국군대에 의탁한것은 독립국이 아니다. 〈한

국》은 국가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의 현 당국은 미국상선의 운차락에 매달려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또다시 연기하려 하고있다.

군통수권을 외세에 수십년 동안이나 통제로 맡겨놓고도 모자라 그것을 반향받지 않겠다고 뽀를 쓰는것이야말로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없으면 살수 없다고 여기는 비굴한 사대의식과 배국배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며 실제적으로 주인노릇을 하고있는 막후조종자, 통치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정통성》이니 뭐니 하며 마치 《자주권과 독자성》을 가지고있는듯이 광고하는것은 미국에 빌붙어 사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우기 위한 유치한 놀음에 불과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글)

##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